

신혼부부 1년 새 8만2천쌍 줄어... '결혼기피'

결혼 5년 내 신혼부부 118.4만→110.2만쌍 평균 자녀 0.66명 불과...5년차에 겨우 1명

지난해 결혼한 지 5년 이내 신혼부부가 8만2000쌍이나 줄었다.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적 추세 속에 코로나19로 계획했던 결혼식마저 미루게 된 영향으로 보인다. 결혼하고 4년차까지는 자녀 수가 평균 1명도 채 되지 않는 등 출산도 늦추는 추세다.

통계청이 12일 내놓은 '2021년 신혼부부 통계'에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혼인신고를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는 110만2000쌍으로 전년(118만4000쌍)보다 7.0%(8만2000쌍) 줄었다.

2017년 138만쌍이던 신혼부부는 2018년 132만2000쌍, 2019년 126만쌍으로 6만쌍 안팎이던 감소 폭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7만6000쌍으로 커지더니 지난해에는 더 확대

된 모습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과 청년층 인구가 감소 영향으로 신혼부부는 해마다 줄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욱 심화되면서 작년에는 감소 폭이 더욱 컸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10쌍 중 2쌍은 재혼부부다. 남편과 아내 모두 초혼인 부부는 지난해 87만1000쌍으로 전년(93만8000쌍)보다 줄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재혼이거나 둘 모두 재혼한 재혼부부는 22만7000쌍으로 역시 감소했지만 전체 신혼부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0.1%p) 늘었다.

혼인 연차 별로는 1년차가 19만2000쌍으로 전년보다 10.4% 감소했

고, 구성비도 17.4%로 가장 적었다. 해마다 결혼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기존 결혼 계획을 미룬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신혼부부 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 수원(2만8100쌍), 성남(2만3000쌍), 고양(2만3900쌍), 화성(2만7600쌍), 충북 청주(2만3000쌍), 경남 창원(2만1100쌍) 등 수도권 신도시나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은 신혼부부가 2만쌍이 넘었다.

반면 전북 장수(272쌍), 전남 곡성(265쌍), 구례(277쌍), 경북 군위(217쌍), 영양(203쌍), 경남 의령(290만쌍) 등 농촌 지역은 300쌍 미만으로 신혼부부 보기가 어려웠다.

신혼부부 자녀 수도 줄고, 아이를 갖는 시기도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혼부부 87만1000쌍 중 자녀가 있는 부부는 47만2000쌍으로 전체 54.2%로 전년보다 비중이 1.3%p 낮아졌다. 평균 자녀 수는 0.66명으로

전년보다 0.02명 감소했다.

초혼 신혼부부 평균 자녀 수는 혼인 4년차(0.86명)까지도 평균 1명에 되지 않다가 5년차(1.05명)에 이르러야 평균 1명을 겨우 넘겼다. 유자녀 비중도 혼인 3년차에야 무자녀(42.9%)보다 많은 57.1%로 나타났다.

경제활동별 자녀 현황을 보면 맞벌이 부부의 유자녀 비중이 49.6%로 외벌이(60.5%) 부부보다 낮았다. 맞벌이 부부 중 자녀가 있는 부부 비중은 49.6%로 외벌이 부부(60.5%)보다 10.9%p 낮았다. 맞벌이 부부 평균 자녀 수도 0.59명으로 외벌이 부부(0.74명)에 비해 0.15명 적었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9.1%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62.1%)보다 13.0%p 낮았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0.59명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0.77명)보다 0.18명 적었다. /뉴시스

'북구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개최 트로트 여왕 '송가인' 출연...15일 북구종합체육관



북구는 오는 15일 오후 4시 북구종합체육관 2층 다목적실에서 '북구민과 함께하는 2022년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오는 2023년 계묘년 신년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당일 정세운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트로트, 오케스트라, 국악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준비돼있다.

특히 초청 가수로 광주예술고등학교 출신의 트로트 여왕 송가인이 출연해 한 많은 대중가수, 물음표, 밤차에서 등 인기곡을 열창하며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퓨전 클래식 CNS 윈드 오케스트라, 국악가요 김근희, 트로트 류경·호세리, 포크&락 프롤로그 등 지역 가수들의 다채로운 공연도 펼쳐진다.

관람료는 무료이나 입장권 소지자만 현장 관람이 가능하고 북구청 유튜브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입장권은 13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티켓링크에서 선착순 예매가 진행되며 오프라인은 13일 오전 10시부터 북구문화센터 2층에서 신분증을 지참한 북구민에 한해 선착순 배부된다. /주성조 기자

광주·전남교육청, 유·초·특수교사 1차시험 합격자 발표

광주 26 · 전남 321명 합격...내년 1월4~6일 2차 시험

광주시교육청 2023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등 임용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6명으로 압축됐다. 이들은 다음달 4일~6일 2차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여부가 결정된다.

광주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합격자 26명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로 유치원 3명, 초등 9명, 특수(유치원) 5명, 특수(초등) 9명

등 총 26명이다.

또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달 4~6일 사흘 동안 교직적성심층면접, 수업실연·수업면접, 초등학교 교사 영어 수업실연·영어 면접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전남교육청은 2023학년도 유·초등·특수학교 1차 임용시험에 321명이 합격했다. 이들은 다음달 4일~6일 진행되는 2차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여부가 결정된다.

전남교육청은 2023학년도 유치원·초등·특수학교(유·초) 선정경

쟁 제1차 시험 합격자와 제2차 시험 장소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별 면접의 40% 미만 득점자를 제외한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로 유치원 82명, 초등학교 228명, 특수학교(유치원) 5명, 특수학교(초등) 6명 등 총 321명이다.

1차 시험 합격자는 2차 시험을 위한 서류를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2차 시험은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목포영산초등학교와 목포애향초등학교에서 실시된다. 2차 시험 최종합격자는 다음달 27일 발표된다. /김도기 기자

12월의 독립운동가 김상태·신태식·김동신 선생

국가보훈처는 국권 회복과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내·외 전쟁영웅들의 희생을 기리고 알리기 위해 매월 '이달의 독립운동가'와 '이달의 6.25전쟁영웅'을 선정하고 있다.

전남동부보훈지청에 따르면, 2022년 12월의 독립운동가에는 1907년 일제의 고종 강제퇴위, 정미조약 강제체결, 군대 해산 등에 반발한 정미의병이 일어나자 일제에 맞서 구국운동을 펼친 김상태·신태식·김동신 선생이 선정됐다.

또한 10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6·25전쟁 당시 영국 제41해병 독립특공대 특공대장으로 참전, 북한지역 해안기습침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드라이스데일 대령이 선정됐다.

정미의병은 1907년 정미조약 체결 이후부터 1910년까지 벌어진 무장항일구국 항쟁으로 일제의 고종 강제퇴위, 정미조약 강제체결, 군대해산 등으로 반일감정이 고조되자 해산당한 군인들이 서울과 지방에서 벌인 무장항쟁이다.

이들은 친일과를 차단하고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는 등 활동을 벌였고 이는 곧 전국적인 의병항쟁으로 확대됐다.

동구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1월 시행 선정위원회 개최...답례품 · 공급업체 공고 등 추진



동구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받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기부자의 고향 등 해당 지자체의 주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사용된다.

동구는 지난 9일 답례품선정위원회회를 개최하고,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업체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이며, 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통신판매업이 가능한 업체로 답

례품을 생산·배송할 수 있어야 한다. 동구는 대표적 특산품이 없지만, 문화예술의 고장답게 예술의 거리, 미술관 거리가 조성돼 있어 이를 활용한 작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인문학당을 포함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5·18민주광장, 동명동 동리단길을 활용한 체험형 문화관광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활발히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과 동구를 대표하는 명장·명인들의 작품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중이다.

입력 동구청장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답례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광주 개농장 철거로 개 39마리 안락사 위기... "입양 절실"

광주 개 도살 농장 폐쇄·철거를 앞두고 입양되지 못한 개 39마리가 안락사 위기에 처하자 동물보호단체가 입양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12일 광주시 동물보호소 등에 따르면, 북구 매곡동 380-2번지에 위치한 개 농장 2곳이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이달 안으로 폐쇄된다.

앞서 북구는 동물권 단체 '케어(Care)'의 요청에 따라 지난 6일 개

농장 주인으로부터 개 65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다.

북구와 농장 개들에 대한 입양 관리·보호를 함께 하는 동물보호소는 보호 개체 수가 모두 차 있던 탓에 농장 개 65마리 중 11마리만 입소시켰다.

남은 54마리 중 11마리는 입양, 2마리는 임시 보호, 2마리는 폐사한 상태다. 현재 농장에 남아있는 개는

총 39마리(도사견 14마리, 진도 혼합 8마리, 소형 혼합 8마리, 5개월 된 새끼 9마리)다.

동물보호소는 철거에 앞서 오는 19일까지 농장에 남은 개들이 입양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를 할 예정이다.

동물보호소 관계자는 "보호소가 포화 상태라 입양되지 않는 개들을 불가피하게 안락사할 수밖에 없다"며 입양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농장직영 진남맹생이탕

예약문의 : 010-3925-3842

염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박 래 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